

말씀 / 창세기 11:27-12:9

요절 / 창세기 12: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 †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 †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셨다.
- † 부르심을 받은 후 아브람의 생활을 살펴보자.
- † 구 분

-아브람을 부르신 하나님(11:27-12:3)

-아브람의 생활(12:4-9)

1. 아브라함의 가계를 살펴보시오(11:27-32). 그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데라는 자식들과 함께 어디로 가고자 했습니까? 그러나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배경 : 시기는 홍수심판이 있은지 365년이 지난 후이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가인과 라멕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다. 이런 죄는 노아시대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후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구속역사를 이어나가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며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같은 도시국가들은 여호와와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꾸며놓고 도시문화생활을 즐기며 정욕의 노예가 되어갔다. 온 지면에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도덕적 타락, 물질주의와 우상숭배, 영적교만과 무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원대한 구속의 물줄기는 홍수심판이 있은지 365년 이후 아브람을 부르심을 구체화된다. 노아의 장자 셈의 9대손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구속역사의 시작이며, 미미하지만 창3:15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 아브람의 가계

데라(아브람의 아버지)

나훔, 하란(아브람의 형제들)

롯, 밀가, 이스가(아브람의 조카들) : 하란의 아들들

아브람은 족장으로 어느 정도 부와 지위를 지니고 편안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다.

☞ 그의 가정 문제

사래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 데라는 자식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였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다.

왜 떠났을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 싫어서, 우상의 세력에 시달리고 절망하여 떠남.

☞ 그러나 도중에 하란에 머물렀다.

왜 하란에 머물렀나? -갈 방향을 잃어서 주저앉음, 시간이 흘러 늙어 죽었다.

2.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12:1)? 아브람의 본토 친척 아버지집에 대해 살펴보시오(참조. 수24:2,3)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 갈대아 우르

이라크 지방, 인류 최초의 문명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위치함, 당시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고대 물질문화가 발달한 곳,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무너진 곳이다.

창19장을 볼 때 3000개의 우상이 있었으며, 대표적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이다. 우상문화, 쾌락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었다. 상관(동성연애), 장자를 불에 태워 죽이는 악습 등이 만연하였다. 우상에는 하늘신(폭풍의 신) 엘릴, 땅의 신 아달, 태양신 사마슈(우루), 달의신 난나르신, 물의신 엘끼, 전쟁의 신, 지혜의 신 등이 있었다.

특히 우르 왕조는 달의 신을 주신으로 섬겼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다. 그의 이름은 달의 신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다. 하란도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다. 또한 창14장을 볼 때 소부족과 소왕국이 많아 서로간의 싸움이 치열하였다.

☞ 이는 소시민적인 삶을 떠나 인류구원역사의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새 역사 창조를 위해 우상이 많은 곳을 떠나 죄악된 환경을 탈출하여 아브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인격적 관계성을 맺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이다.(마10:37,38)

† 오늘날 내가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버지집은?

-혈연의 정 : 부모님, 친구, 소시민적 삶(갈1:15,16, 눅1:38)

-죄악된 습관 : 정욕, 안일, 이기심, 연애감정 등

3.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2a)? 여기서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을 말합니까?(참조. 18:18,19)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두신 희망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큰 민족을 이루고(창18:18,19) -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

☞ 큰 민족(Great nation) :강대한 나라, 여호와의 나라, 제사장 나라, 믿음의 큰 민족,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됨.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한다. 이 나라는 인종, 국경, 혈연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민족이다. 거룩한 나라이다.

☞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여기에는 아브람을 통해서 생명구속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져 있다.

4.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2b)?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3)? (참조 22:18, 갈3:8,9)

☞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 You'll be a blessing.

네가 그렇게 하면,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복덩이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이다.

☞ 복의 근원이 된다 - 복을 나눠주는 존재가 된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삶을 살게된다. 이는 아브람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다(창3:15, 창22:18, 갈3:14-16)

: 건강, 벼슬, 부, 지식, 장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생의 복(창22:18, 시32:1)

5. 이상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그 역사 방법을 생각해 보시오.

☞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세우사 구속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소망에서 소망을 찾아내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75세의 아브람이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다. 부르심은 그 자체가 큰 은혜요

6.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4)? 그는 무엇을 근거로 신앙출발을 했으며, 그때 그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이때 누가 함께 갔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참조 히11:8)

☞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좇아 갔고 - 순종하는 삶.

☞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출발을 하였다(롬4:20,21).

그의 형편은 75세의 늙은 노인의 신분, 최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 떠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구체적으로 순종했다(히11:8).

7.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무슨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까(7)?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6b)? (참조 행 7:5) 이런 중에서도 아브람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7-9)? 그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배울 바가 무엇입니까?

☞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기업을 약속하심.

☞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곳에 단을 쌓았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그곳에 밭붙일 곳이 없자 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막생활 함.(히11:9,10)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속역사의 물줄기를 일으키시기 위해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감사하는 삶, 장막생활을 잘 감당하였다.